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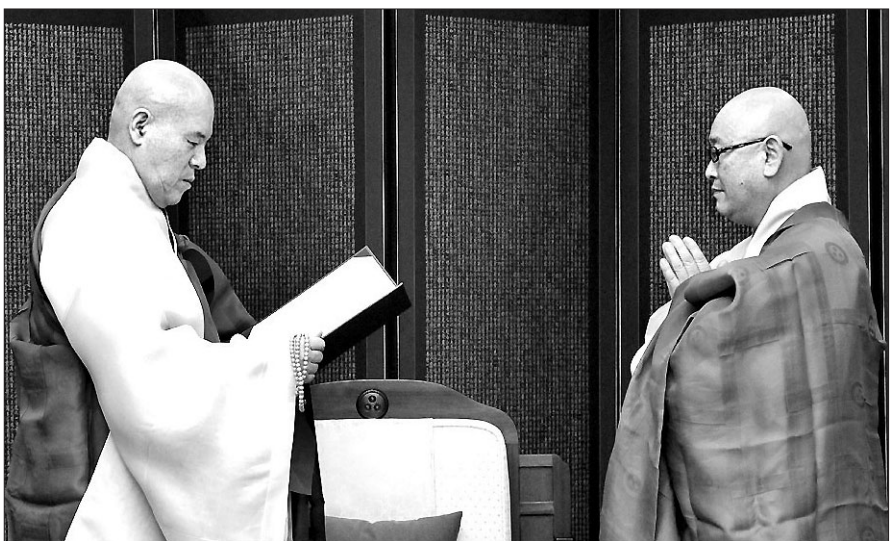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구랍 23일 임명... 국장급 인사도 일부 단행

조계종 총무원 신임 총무부장에 부하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3일 오전 정만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을 임명했다. 당초 총무원 안팎에서는 총무부장을 비롯해 소폭의 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자승 스님은 공석인 총무부장을 인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지현 스님은 33대 집행부에서 이미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10·27법난 위원장과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바 있어 종단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중요한 시기인 만

금 소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수계했다. 12~16대 중앙총회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청량사 주지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총도감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국장급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해 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전 사서국장 조성 스님을, 총무원장 사서에 전 호법과장 인오 스님을 임명했다. 또 총무원 호법과장에는 탄국 스님을 임명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3일 신임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을 임명했다.

선학원 회수 특위 활동 방향 논의

구랍 18일 첫 회의... 실무위한 소위 구성

조계종 중앙총회가 지난 200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재단법인 선학원 종단회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가 구랍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실무위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장 주경 스님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과 법적·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법적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종단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 스님은 "15대 중앙총회에서 특위가 구성됐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다. 특위 명칭부터 '회수'를 쓰는 것은 전정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에 앞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승 스님도 "종단·총회와 제방 어른 스님들의 여론은 다르다. 너무 급진적으

로 다루지 말고 협상과 타협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성무 스님도 "분종은 막아야 한다.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상처가 남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원 스님(직함)은 "종단의 노력이 있었지만 선학원은 탈종과 자체 승려종도 발급하며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통의 창구는 열어줘야겠지만, 종단도 강단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간사에 제민스님을 선출하고, 주경 제민 정범 태호 원경 법원 도수스님의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16대 중앙총회 전·후반기 동안이며,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위원 주경, 법보, 정범, 정수, 성무, 제민, 법원 스님 등 10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은 또 다른 시작”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구랍 23일 1000일 정진 회향

“우리의 다짐을 많은 대중과 함께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사회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종단과 불자의 임원이며 우리가 밝힌 등불에 빛을 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본부)가 2012년 3월 28일 입재한 생명평화 정진이 구랍 22일 1000일을 맞았다. 조계종 결사본부는 구랍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평화 1000일정진 회향 및 생명평화 법당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차사에서 생명평화 정진의 후속 사업인 '사부대중 100일 대중공사'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 종단은 ‘붓다로살자’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오랜 공업을 녹이기 위한 ‘사부대중 100일 대중공사’를 성실성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와 종단의 현실과 엄중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데 중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삼없는 결사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진제 스님은 “우리가 1000일의 간절한 서원을 세움은 1000일

위한 것이 아니라 10000일을 향한 첫 걸음이자, 정법을 향한 끝없는 결사였으니 여찌 방일함을 용납하겠는가”라며 “첫 발심의 매듭을 다시금 살펴 끝없는 정진으로 일념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2012년 3월부터 정진했지만 사부대중 참여 한계 보여줘

정진단, 법당으로 상시 운영 후속사업으로 대중공사 진행 대중 참여·결과 반영 '물음표'

이어 도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붓다로살자’ 친필 휘호를 대웅전 불단에 봉정했으며,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붓다로살자’ 결사도량 및 결사단체를 선포한 조계사, 국제선센터, 상주사, 금정사, 법륜사, 금선암, 포교사단, 불교레크리에이션협의회 등 총 8곳에 생명평화를 상징하는 연등을 이운했다. 법회가 끝난 뒤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조계종결사추진본부는 구랍 23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귀향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정진단을 상시 법당으로 전환하는 현판식 모습

단을 생명평화법당으로 전환하는 현판식이 이어졌다. 결사본부는 생명평화법당을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의 기적 1000일 기도를 비롯해 ‘붓다로 살자’ 실천 활동을 펼치는 열린 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종단의 결사운동을 통해 불자들이 대승 불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미완의 성공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대중 참여의 저조이다. 정진단을 조계사 경내로 옮기고 세월호 참사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동참 인원이 늘어났지만, 이전에는 동참률이 높지 않았다 대부분 정진 동참자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출·

재가 종무원, 일부 특정 사찰과 단체, 포교사 등에 그쳤다. 대중의 공감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부대중 100일 대중공사'와 '붓다로 살자' 운동도 마찬가지다. 이미 100일 대중공사의 출범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계 일각에서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전략이라는 비판부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한계점까지 지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미생(未生)'에 그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후속 사업을 통해 '완생(完生)'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구성원 “총장 선출 과정 재검토”

총장 선거 종단 개입 두고 구성원 고발·시위 이어져 “종단 사과 및 선거 재시행” 이사회, 교육부 질의 준비 중

동국대 총장 선출에 대한 종단 개입을 비판하는 동국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종단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교수들과 직원들은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구랍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5원장 스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23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광백 동국대 제4대 총학생회장과 최창훈 제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태현 식품공학과 재학생 등 동국대 학생들은 “총장 선거에 대한 외부인사의 개입은 비민주적 절차”라며 “이는 대학 명예와 위신,



동국대 학생대표들이 구랍 23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단의 총장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학생은 시위에 이어 총무원 총무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견학이념을 송두리째 내던진 행위로 차기 총장이 조계종의 허수아비라면 학교 안으로 한발자국도 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및 민주적 절차를 포함한 총장선거의 재시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동문들도 종단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자세로 나섰다. 동국대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 측인 정한

수와 동국대 행정 교무위원, 동국대 직원 노조도 구랍 22일과 23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종단의 사과 및 총장 선출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총장 선입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장후보추대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총장 후보들은 단지 총장이라는 직위를 원하는 개인이 아니라 대학 발전을 염원하는 구성원 전체 의지를 대변한다”며 “일부 스님들이 김희옥 총장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목과하기 어려운 행위며, 한마디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교육부 질의 내용이 23일 현재 이사장 결재가 진행중으로 확정되면 교육부에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사무처의 교육부 질의 내용은 △총장 후보 사퇴로 인한 단독후보 선출의 적법성 △종단 인사와의 회동 후 후보 사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저촉 여부가 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乙未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2014년 등록된 아래스님을 종도로 확정 공고합니다

- 정광(안상수) 창해(허중수) 태일(권준광) 우석(손영채) 보원(성재호) 일륜(김두환) 무상(이홍길) 자안(전현택) 능관(안봉근) 자연(김종화) 해인(이영우) 준명(이종귀) 해안(강금숙) 송해(김건봉) 무승(한상호) 옥천(오세균) 석불(김영규) 법선(한경수) 선운(김재연) 혜원(이동재) 무상(권오현) 유상(고점식) 천수(김환철) 호석(서성락) 법진(이영규) 법정(이종근) 해명(정명숙) 금파(최재봉) 무공(이용운) 법진(김종권) 원일(양혁문) 대호(최병식) 상화(최복순) 수경(강성식) 법원(강승찬) 수현(양진희) 원해(고승안) 지연(김홍자) 호산(지홍림) 해명(이영수) 월함(최일갑) 도철(이 실) 보해(이순자) 보광(백종경) 자광(강운수) 도원(박사암) 해명(정미정) 경산(정홍배) 지안(이옥려) 서운(최종운) 무중(김명호) 도우(류재용) 도명(김위권) 남주(주상태) 법정(전재연) 청공(박태규) 보광(이인식) 상도(김옥태) 혜성(남순이) 무진(윤공현) 보리(김은구) 해명(김미경) 해봉(권태현) 마명(최영화) 도현(최득수) 무공(김태경) 송해(정원덕) 원덕(정해철) 지호(이영우) 보각(권영열) 현수(정희진) 지산(조대용) 명조(김민선) 성우(하재동) 보화(이순자) 자운(성창원) 선인(신태호) 도전(정금운) 성암(임우섭) 연화(정연화) 자성(천향복) 경오(이영환) 성죽(이영배) 해담(류석돈) 상법(양기철) 덕화(우금자) 금우(조남현) 원담(김경원) 지광(지경환) 해진(김용택) 법연(이영우) 진덕(이동준) 재승(이수정) 무애(김외화) 명운(이종도) 보부(신대호) 향봉(양성백) 향적(안재홍) 범광(최숙희) 대산(김용만) 원도(이준호) 원각(차재도) 일광(임동석) 운봉(김경진) 무상(변동욱) 도명(김양배) 정념(강경희) 무진(박호현) 송정(최용준) 진학(최광식) 석권(정옥순) 무해(손영길) 정운(김귀희) 청우(김형철) 범일(김양주) 옥운(김옥자) 동이(김두성) 진덕(이동준) 해성(김재환) 무공(박관용) 무운(최경진) 무진(김종권) 남산(최석주) 석해(정동수) 화심(황용택) 명선(김상배) 보광(손호기) 가섭(임거성) 송해(박원옥) 대원화(김호아) 무량화(최태자) 공덕화(채욱자) 광명성(김정희)

등록하지 않은 스님들은 대한불교 원효종에서 제적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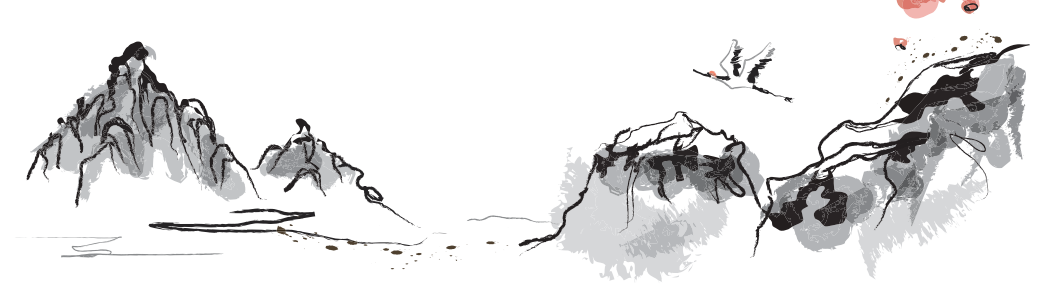
2014년 12월 20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 석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답동 344-2) 전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대한불교 원효종은 다음과 같이 신년 하례 법회를 개최합니다. 종도스님들은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바랍니다.

날 자 : 2015년 1월 7일 (수요일) 10시 30분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주 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지참물 : 가사장삼



2014년 12월 20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